

## 제주연안여객선터미널 찾아 설 명절 대비 여객안전점검

- 강도형 해수부 장관, 설 명절 대비 연안여객선 및 터미널 점검
- 국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조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8일(목) 제주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설 명절 연안여객 수송 계획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.

먼저, 강 장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운항관리센터를 방문해 설 명절 여객선 특별교통대책\*을 보고 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. 또한, 여객터미널 대합실의 안전·위생 관리상태, 소화장비, 비상안내방송, 피난 대피로 표시, 폐쇄 회로 TV(CCTV)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설비도 점검했다.

\* 설 명절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

- (기간) '24.2.8(목) ~ 2.12(월) / 5일간
- (주요내용) ①여객선 운항 확대, ②여객선 및 이용시설 안전관리, ③이용객 편의 증진 등

이후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여객선(산타모니카호)에 직접 탑승하여 여객선의 선체, 기관설비, 구명기구 및 편의시설 등을 점검한 후 이용객들의 승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도 확인하였다.

강 장관은 여객선을 점검하면서 관계자들에게 “올해 설 명절은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많은 여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.”라며, “국민분들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설비와 편의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, 사전에 안전 수칙과 비상시 행동요령도 철저히 숙지하여 대응해주시길 바란다.”라고 당부하였다.

한편, 이날 오후 강 장관은 우도 등대를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설 연휴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선박의 안전과 국민의 희망이 되는 등대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	책임자	과 장	도경식 (044-200-5730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훈 (044-200-5733)
	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	책임자	과 장	유은원 (044-200-5870)
		담당자	사무관	전기준 (044-200-5874)